

보육교사의 부모와의 아동기경험이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 자기분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 현 순¹⁾

서 주 현²⁾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의 영아반을 담임하고 있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보육교사의 부모와의 아동기경험이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여 보육교사의 아동기경험 및 자기분화가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아동기경험은 Epstein(1983)의 부모-또래척도를, 자기분화는 전연진(2002)의 원가족분화경험척도를, 교사민감성은 Gerber(2003)의 교사민감성척도를 사용하였다. SPSS 21.0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각 변인은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보육교사의 아동기경험은 교사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기경험 중 독립성조장은 자기분화의 하위요인 정서적 단절, 정서적 분리, 삼각화에 간접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수용은 자기분화의 하위요인 정서적 단절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정서적 분리와 삼각화에는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본연구의 결과는 교사 양성과정의 교육 내용 및 현직 보수교육과정의 내용을 구성하는 데에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독립성조장, 수용, 교사민감성, 정서적단절, 정서적분리, 삼각화

* 본 연구는 2017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 논문을 확장시킨 것임.

1) 상명대학교 아동발달 및 보육전공, 석·박과정

2) 교신저자 :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조교수 (E-mail: jhsuh@smu.ac.kr)

I. 서 론

영아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보호와 양육을 받으며 사회에 대한 적응을 점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 된다. 부모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 성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권기자, 2010), 영아는 양육자의 도움으로 사회적인 존재로 성장과 발달을 시작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맞벌이의 증가 등 부모의 근로 환경변화와 핵가족의 증가 및 한부모 가족의 증가 등 가족의 구조적인 변화로 영유아의 양육을 개별 가족이 전담하던 것에서 점차 보육 및 유아교육기관 등 사회가 양육의 책임을 일부 분담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2013년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공보육의 기틀을 마련한 이래, 국가통계포털에서의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는 전체 영유아 만 0~5세의 총 1,451,215명이며, 연령별 보육아동을 보면 만 0~2세 영아의 어린이집이용 현황은 845,984명으로 전체 영아의 58.29%를 차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 대다수의 영아가 부모의 품에서 떨어져 영아기부터 어린이 집에서 교사에 의해 장시간 보육되고 있는 것이다.

영아는 주된 양육자와 분리가 되어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한다(김재란, 2017). 태어나면서부터 양육을 받던 환경과 양육자와 다른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선생님과 적응하는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내적·외적요인에 의한 갈등을 겪게 된다. 자신을 담임하고 있는 교사를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즉 어린이집 생활에 있어서 보육교사는 영아가 성장해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인 1차 가

족 구성원과 같은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게 되고(빈윤희, 2015), 보육교사는 보육아동에게 매우 결정적이고 무조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허혜경, 박인숙, 2010). 보육교사와 영아의 안정애착은 영아가 어린이집에 적응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한 가정 안에서 개인이 출생하여 갖는 1차 가족 구성원인 원가족(family of origin)은 성장해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녀는 양육자의 영향을 받으며 자라게 된다(빈윤희, 2015). 어머니가 자신의 부모와 맺은 애착은 이후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애착관계를 예측한다(Van Ijzendoorn, Schuengel, & Bakermans-Kranenburg, 1999). 또한 아동기 때의 긍정적인 경험은 성장 후 성인기에도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며(Vondra & Belsky, 1993), 성인이 된 자녀가 자신의 자녀를 낳아 양육을 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김나영, 2001; Bartle-Haring & Sabatelli, 1998).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은 자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양육자로부터 받게 된 자신의 아동기 경험이 보육에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미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아동기경험이란 어린 시절에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경험을 의미한다. 성장하면서 자립하기 위한 일원으로 무언가를 행할 때 부모로부터 독립성을 긍정적으로 촉진 받았거나 부모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과잉보호를 받은 경험과 어린 시절의 욕구 등 자신의 표현이 받아들여지거나 혹은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거부 받은 경험이다(권영임, 2011; 김나영, 2001; 김철근, 이완정, 2012; 전현진, 1997). 용에 의

하면 어린 시절 경험한 어려움을 의식하지 못하고 무의식에 자리하게 되었을 때 자아가 형성되고 성장하고 성인이 되면서 그것이 자신의 그림자로 외부에 투사가 된다(이부영, 2011).

아동기경험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어머니가 어린 시절 원가족에서 받은 긍정적인 양육경험이 자신의 자녀를 대하는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광숙, 2011; 김동진, 2016; 문영희, 2013; 박한별, 2014; 윤은희, 2014). 전현진(1997)의 연구에서는 아동기 때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행동에 의한 안정적인 경험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독립심의 지지와 수용을 많이 보내고 회피적인 경험을 한 경우에는 상대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기 어려우며 수용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원가족 부모로부터 받은 양육에 대한 부정·긍정적인 경험은 아동기경험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결과를 보육교사와 영아의 관계에 적용해 볼 때, 보육교사의 아동기경험은 영아를 보육할 때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기경험에 대한 연구는 주로 부모 혹은 어머니에 대한 아동기경험이 부모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한 연구(공병호, 백승학, 2014; 김정주, 김용미, 2011; 성연숙, 2011; 원수연, 최미경, 2014; 이미영, 이현옥, 2015; 이지선, 2001; 장영심, 조영숙, 2014)와 자녀태도에 관련한 연구(권영임, 2011; 장영심, 조영숙, 2014)가 있다. 보육교사의 아동기경험에 관한 연구로는 아동기 시절 가정폭력 경험과 학대피해경험에 대한 영향력(이미선, 김하나, 2015)과 보육교사의 교수 효능감의 영향력

(김철근, 이완정, 2012)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영아를 돌보는 보육교사는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영아와 같이 원가족(family of origin)의 영향을 받고 자랐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육교사의 아동기경험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의 아동기경험에 대해 이루어진 선행연구는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

보호자의 영아에 대한 민감한 반응은 영아가 애착을 형성하면서 성장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김숙령, 2010; Ainsworth, 1982). 어머니의 민감성은 영아의 안정 애착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으로 초기 애착이론가들에 의해 강조되어 왔다(Stayton, Ainsworth, & Main, 1973). 어머니에 의한 영아기의 자녀 양육은 애착과 신뢰감 형성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한 인간의 발달에 긍정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정경화, 김숙령, 2014). 이처럼 보육교사가 영아의 정서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아의 욕구에 대한 일관적이고 따뜻한 반응을 보일 때 영아는 교사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다(송애란, 송승민, 이사라, 2015).

한편 영아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음성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기에는 아직 그 능력이 충분히 발달되지 못하여, 음성 이외의 여러 형태의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심리적, 생리적 상태를 표현하게 된다(윤은영, 2013). 어머니가 유아를 생각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유아들로 하여금 유아 자신의 행동 신호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한다(Meins, 1999). 따라서 영아는 자신의 상태를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지만 언어적·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해 표

정과 몸짓으로 자신의 상황을 알려주기를 요구한다.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영아들은 민감한 반응을 받을 수 있는 애착 대상인 보호자와 떨어져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며 생활을 해야 한다(김영숙, 신나리, 2013). 보육교사는 어머니와 닮은 모습으로 영아를 수용하며 민감하게 반응을 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교사가 영아의 정서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성을 다해 따뜻한 반응을 보일 때 영아는 어린이집에서도 안정 애착을 형성한다(송애란 등, 2015). 보육교사는 교사에게 의존하고 애착을 형성하기 위해 표출하는 영아의 다양한 표현에 적절하고 민감하게 반응해 주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의 민감성이란 보육교사가 영아의 다양한 정서적·신체적 표현들에 즉각적이고 민감한 발달을 돕는 중요한 요인이다(김기철, 이선채 2016; 정미라, 권정윤, 박수경, 2011).

어머니에 의한 영아기의 자녀 양육은 애착과 신뢰감 형성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한 인간의 발달에 긍정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정경화, 김숙령, 2014). 어머니의 민감성은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형민, 박성연, 서소정, 2008). 이처럼 보육교사의 민감성은 영아에게는 사회적인 존재로서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육교사의 영아에 대한 민감성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변인을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교사민감성에 대한 기존 선행 연구에서 교사민감성에 정서지능이 영향을 미치며(이민영, 2015), 영아교사의 자아탄력성과

직무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수진, 이경님, 2015). 또한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소진이 교사민감성에 영향을 미친다(김아령, 2015)는 연구결과는 교사민감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적인 변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육교사의 아동기경험이 영아를 보육할 때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가정을 해 볼 때 교사의 아동기경험을 살펴보고 교사민감성에 아동기경험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보육교사의 아동기경험이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없었으므로 본 연구에서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분화는 정서와 관련된 것으로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정서적인 관계가 어려워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서적 단절과 부부 간의 갈등 시 자녀를 끌어 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상대 배우자의 단점을 자녀에게 동조 받고자 끌어 들이는 과정에 생기는 삼각화, 그리고 자녀가 부모와 과잉 밀착하지 않고 건강하게 분리되어지는 것에 긍정적으로 지지해 줄 때 형성될 수 있는 정서적 분리에 관한 것이다(전연진, 2002). Bowen(1985)은 가족체계이론에서 자기분화를 정서적 성숙의 정도와 자기가 태어난 가정으로부터 개별화된 정도로 개인의 사고와 정서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표현하였다.

자기분화가 잘 된 개인은 자신 가족의 감정적인 체계에 지배되지 않고 감정적인 느낌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지적인 기능과 정서적 기능이 건강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

으므로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현실을 구별하는 능력으로 만족스러운 감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Gilbert, 1992; Kerr & Bowen, 1998). 조상희와 박찬옥(2012)의 연구에서 낮은 자기분화에서 비롯된 이성적 특성은 과보호와 통제의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며, 자기분화가 낮은 어머니들은 원가족에서 경험했던 어머니의 양육에서 분리되고 싶으나 분화되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성장하면서 원가족과의 분화 과정을 통해 친밀한 관계로부터 안정적인 분리까지의 정서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분화의 과정이 순조롭게 되도록 돕는 것이 가족의 주요 역할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가족으로부터 분화가 잘 이루어진 경우 타인과 만족도가 높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나 미분화되었을 때는 관계형성에서 높은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Lim & Jennings, 1996).

또한 문영희(2013)의 연구에서 원가족에서 자아분화는 양육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자기분화는 개인적인 성숙과 관련되고, 어머니의 분화 수준은 양육할 때에 자녀에게 전이가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기분화가 개인의 성숙을 나타내고 양육태도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아동기경험이 자녀양육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종합하여 살펴보았을 때, 아동기경험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자기분화가 그 영향력을 매개할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기존 자기분화의 교사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예비교사에 관련한 연구(이유진, 김정미, 2013; 이태영, 김명하, 2013; 정

미숙, 이미나, 2015; 황소영, 2014), 유아교사의 관계성 연구(하지민, 서현아, 한희정, 오소라, 2015)가 있다. 보육교사 관련한 연구로는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김경희, 김선희, 2016), 조직시민행동에 관한 연구(예남희, 민하영, 2013)가 있다. 자기분화의 하위요인 중에서 삼각화와 정서적분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서적단절의 연구에 있어서 이윤희(2012)의 방임적인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기개념불명료성과 정서적 단절 도식을 통해 자기도취 성향을 예측한 연구결과와 김유리와 김희정(2013)의 부모의 심리적인 통제가 높을수록 자녀는 정서적 단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가 있다.

보육교사의 아동기경험에 자기분화의 매개 역할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교사의 아동기경험과 교사의 자기분화가 교사민감성에 각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교사의 자기분화는 교사의 아동기경험이 원인이 되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사의 아동기경험이 교사 자신의 자기분화를 통해 교사민감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아동기경험의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해 교사가 성장하면서 독립성을 긍정적으로 고무를 받았는지에 대한 독립성조장과 교사의 어린 시절에 자신의 욕구 등의 표현이 받아들여진 수용과 함께 부모에 의해 내재하게 된 정서적인 자기분화수준의 정서적단절과 삼각화 그리고 정서적분리가 교사 민감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아동기 경험과 자기분화가 복합적으로 교사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밝히는 연구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아동기경험과 함께 자기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보육대상인 영아와의 관계에서의 효능감이 높고, 영아들과 보다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자세로 관계를 유지하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영유아의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교사의 민감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에 실제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이상으로 살펴본 것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아동기경험과 자기분화 및 교사민감성에 대한 관계는 어떠한지 알아보고 보육교사의 아동기경험이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혀보고자 한다. 또한 아동기경험이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에 자기분화가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아동기경험이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자기분화의 매개역할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이론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제시는 보육교사의 아동기경험이 내적으로 분화되지 못하고 겪고 있는 어려움에 적절한 서비스지원이 마련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이상의 목적으로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보육교사의 부모와의 아동기경험(독립성조장, 수용)과 교사민감성과 자기분화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보육교사의 부모와의 아동기경험(독립성조장, 수용)이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보육교사의 부모와의 아동기경험이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기분화(정서적 단절, 정서적 분리, 삼각화)는 매개효과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예비조사

본 연구에서 사용할 도구들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예비조사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검사를 위해 경기도 파주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중에서 연구대상인 영아반을 담임하고 있는 20명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예비조사를 통하여 설문에 대한 설명을 구조화하여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높였다.

2. 본조사

서울과 경기도에서 영아를 담임하고 있는 보육교사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결측치(사회 인구학적 배경 결측치는 제외)가 있는 설문을 제외하고 198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은 표 1과 같다. 교사연령으로는 40대가 49%(97명)로 가장 많았고 30대 이하는 38.4%(76명)로 나타났다. 학력은 전문대 및 4년제 졸업이 72.2%(143명)로 전문대 졸업 이상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자격급수는 보육교사 1·2급이 93.5%(185명)로 거의 대부분의 보육교사가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었다. 영아반을 맡은 경력은 3년 미만이 53.0%(105명)로 과반수를 넘었다. 보육교사로 근무한 총 경력은 1~3년 미만이 40.9% (81명)로 많았으나 5년 이상인 경우도 34.3% (68명)에 달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배경

(N = 198)

변인	구분	n	%
연령	20대	46	23.2
	30대	30	15.2
	40대	97	49.0
	50대 이상	18	9.1
	무응답	7	3.5
학력	고등학교 졸	41	20.7
	전문대 졸	87	43.9
	4년제 졸	56	28.3
	대학원졸 이상	7	3.5
	무응답	7	3.5
자격급수	보육교사 1급	91	46.0
	보육교사 2급	94	47.5
	보육교사 3급	6	3.0
	무응답	7	3.5
영아반 보육경력	1~3년 미만	105	53.0
	3~5년 미만	37	18.7
	5년 이상	44	22.2
	무응답	12	6.1
총 보육경력	1~3년 미만	81	40.9
	3~5년 미만	38	19.2
	5년 이상	68	34.3
	무응답	11	5.6

3. 측정도구

보육교사의 아동기경험

보육교사의 아동기경험은 원가족에서 보육교사가 성장하면서 교사 자신과 부모의 관계에서 경험한 것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Epstein(1983)의 부모-또래척도(Mother-Father-Peer Scale, MFPS)를 전현진(1997)이 번안 및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독립성조장 대 과잉보호(12문항)와 수용 대 거부(9문항)의 두 하위요인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총 21문항을 측정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에 의한 더 많은 독립성이 조장되어 있고, 더 많은 수용이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다수의 선행연구(권영임, 2011; 김나영, 2001; 김철근, 이완정, 2012)를 토대로 타당도를 인정받았으며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와의 아동기경험 전체의 신뢰도는 .80로 신뢰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하위영역은 모의 독립성조장 .71, 모의 수용 .84로 나타났다. 아버지와의 아동기경험 전체의 신뢰도는 .81로 신뢰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하위영역은 부의 독립성조장 .69, 부의 수용 .84로 나타났다.

자기분화

보육교사의 자기분화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전연진(2002)이 개발한 원가족 분화 경험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Bray, Williamson과 Malone(1984)의 Personal Authority in the Family System Questionnaire (PAFS-Q)와 전춘애(1994)의 자아분화 척도, Chun(1994)의 부모-자녀 분화 척도(Parnt-Child Differentiation Scale, PCDS)를 토대로 개발된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개인이 공부, 취직, 결혼 등의 이유로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하기 이전에 부모와 어떠한 정서적 관계를 경험하였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이다. 자신의 원가족에서 미해결된 정서적 애착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물리적 거리를 두어 회피하려는 것에 관한 '정서적 단절'(12문항), 원가족으로부터 건강하게 정서적 분리를 경험한 것을 의미하는 '정서적 분리'(7문항), 가족에서 부부간에 긴장이 발생하면, 긴장을 해소, 완화시키기 위해 부부 중 한 명이 자신들의 문제에 자녀를 끌어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삼각화'(7문항)로 세 하위요인,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적 단절과 삼각화는 점수가 낮을수록 분화수준이 높음을 의미하고 정서적 분리는 점수가 높을수록 분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기분화수준과 일관되게 각 하위변인의 방향성을 통일하기 위해 정서적 단절과 삼각화의 점수는 역채점한 값을 사용한다(김경희, 김선희, 2016). 모관계의 자기분화 전체 신뢰도는 .90로 신뢰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하위영역은 모관계의 정서적 단절 .90, 모관계의 삼각화 .71, 모관계의 정서적 분리 .67로 나타났다. 부관계의 자기분화 전체 신뢰도 역시 .89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하위영역은 정서적 단절 .87, 부관계의 삼각화 .75, 부관계의 정서적 분리 .66로 나타났다.

교사민감성

보육교사의 교사민감성 측정을 위해서는 Gerber(2003)의 교사민감성(teacher's sensitivity) 척도를 이정숙(2003)과 장현주(2004)가 영아반 보육교사의 상호작용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김미영(2011)이 일부 수정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교사민감성 척도는 민감한 상호작용(12문항)과 비민감한 상호작용(10문항)

의 두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22문항을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비민감한 상호작용에 관한 10문항은 역코딩하여 합산하여 높은 점수일수록 보육교사가 영아를 대할 때 민감하게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선행연구(김기철, 이선채, 2016; 김미영, 2011; 김재란, 2017)를 통해 타당도를 인정받았으며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교사민감성 전체 신뢰도는 .80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하위영역은 민감한 상호작용 .69, 비민감한 상호작용 .82로 나타났다.

4. 연구절차

서울과 경기도 소재의 어린이집 중에서 영아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 및 수거하였다. 서울 160부, 경기도 180부 총 34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서울 84부, 경기도 166부가 회수되었으며 총 250부, 73%가 회수되었다. 회수한 질문지 중 부실하게 기록이 된 52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19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21.0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Pearson의 적률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아동기경험이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 및 자기분화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와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통계적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아동기경험, 자기분화, 교사민감성과의 관계

아동기경험과 자기분화, 교사민감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각 변인들의 상관계수는 .23~.66($p < .01$)으로 각각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모든 상관계수($p < .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정서적 단절과 삼각화의 점수는 하위변인의 방향성을 통일하기 위하여 역채점한 값을 사용하였으므로 표 2에서 정서적 분리와 함께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 정서적 단절과 삼각화는 점수가 낮을수록 분화수준이 높음을 의미하고 정서적 분리는 점수가 높을수록 분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아동기경험에는 독립성조

장과 수용의 경험이 많을수록, 자기분화에는 정서적 단절과 삼각화의 경험이 적고 정서적 분리의 경험이 많을수록 교사민감성이 높아지는 상관관계 결과를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보육교사가 독립성을 조장하고 수용적인 양육을 받은 아동기경험을 가지고 자기분화가 잘 된 경우 교사민감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2. 아동기경험이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

상관관계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기경험의 각 하위요인인 독립성조장과 수용이 각각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성조장 아동기경험이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

보육교사의 아동기경험의 하위요인 중 독립성조장 아동기경험이 교사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

표 2. 아동기경험, 자기분화, 교사민감성 상관관계 ($N = 198$)

		1	2	3	4	5	6	7	8
아동기경험	독립성조장	1							
	수용	.28**	1						
	아동기경험 전체	.72**	.87**	1					
자기분화	정서적단절	.23**	.66**	.60**	1				
	정서적분리	.33**	.64**	.63**	.60**	1			
	삼각화	.35**	.34**	.42**	.51**	.30**	1		
	자기분화 전체	.37**	.68**	.68**	.90**	.77**	.74**	1	
교사민감성		.24**	.26**	.31**	.26**	.29**	.25**	.32**	1

** $p < .01$.

표 3. 독립성조장 아동기경험이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

(N = 198)

변수	비표준화 계수		<i>t</i>	<i>R</i> ² (adj <i>R</i> ²)	<i>F</i>
	<i>B</i>	표준오차			
(상수)	6.77	.45	15.16***	.06	11.55**
독립성조장	.43	.13	3.40**	(.05)	

** $p < .01$. *** $p < .001$.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독립성조장이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해 본 결과 설명력은 6%로 나타났으며($F = 11.55$, $p < .001$).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으로 나타났다. 독립성조장 아동기경험은 교사민감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력을 미쳤으며 독립성조장 아동기경험이 1단위 증가할 때 교사민감성이 평균 .43이 더 증가하였다.

수용적 아동기경험이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

보육교사의 아동기경험의 하위요인 중 수용적 아동기경험이 교사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수용적 아동기경험이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해 본 결과 설명력은 7%로 나타났으며($F = 14.22$, $p < .000$),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

으로 나타났다. 수용적 아동기경험이 교사민감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수용적 아동기경험이 1단위 증가할 때 교사민감성이 평균 .34 증가하였다.

3. 아동기경험이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보육교사의 아동기경험이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Baron와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립성조장 아동기경험이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적 단절의 매개효과

보육교사의 독립성조장 아동기경험이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정서적 단절의

표 4. 수용적 아동기경험이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

(N = 198)

변수	비표준화 계수		<i>t</i>	<i>R</i> ² (adj <i>R</i> ²)	<i>F</i>
	<i>B</i>	표준오차			
(상수)	6.94	.36	19.43***	.07	14.22***
수용	.34	.09	3.78***	(.06)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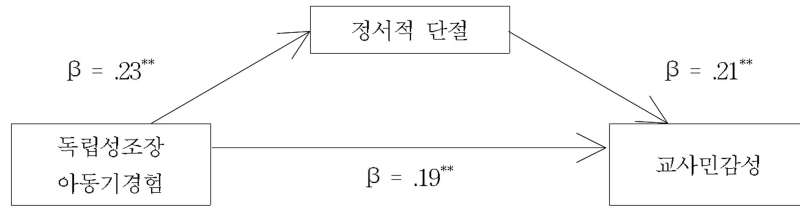


그림 1. 독립성조장 아동기경험이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적 단절의 매개효과
** $p < .01$.

표 5. 독립성조장 아동기경험이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적 단절의 매개효과 ($N = 198$)

단계	변인	B	β	t	R^2	F
1단계 (독립→매개)	독립성조장 → 정서적단절	.38	.23	3.33**	.05	11.08**
2단계 (독립→종속)	독립성조장 → 교사민감성	.43	.24	3.40**	.06	11.55**
3단계 (독립, 매개→종속)	독립성조장 → 교사민감성	.34	.19	2.67**	.10	10.67***
	정서적단절 → 교사민감성	.23	.21	3.05**		

** $p < .01$. *** $p < .001$.

매개효과는 그림 1, 표 5와 같다. 회귀분석 결과 독립성조장 아동기경험이 정서적 단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 = 11.08$, $p < .001$), 교사민감성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11.55$, $p < .001$). 또한 독립성조장 아동기경험과 정서적 단절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교사민감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10.67$, $p < .000$). 이때 독립성조장 아동기경험이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여($\beta = .24$, $p < .001$; $\beta = .19$, $p < .01$), 정서적 단절의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매개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본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 = 2.25$, $p < .05$). 즉 독립성조장

아동기경험은 교사민감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독립성조장 아동기경험이 정서적 단절을 통해 교사민감성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수용적 아동기경험이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적 단절의 매개효과

그림 2, 표 6과 같이 보육교사의 수용적 아동기경험이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정서적단절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회귀분석결과 수용적 아동기경험이 정서적 단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 = 154.04$, $p < .000$), 교사민감성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14.22$, $p < .000$). 그러나 수용적 아동기경험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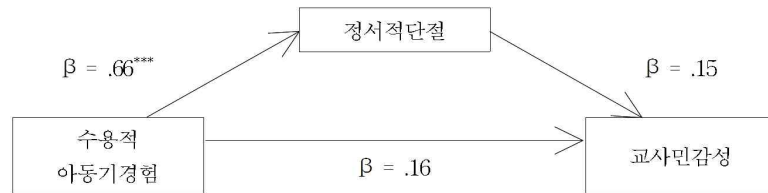


그림 2. 수용적 아동기경험이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적 단절의 매개효과
*** $p < .001$.

표 6. 수용적 아동기경험이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적 단절의 매개효과 ($N = 198$)

단계	변인	B	β	t	R^2	F
1단계 (독립→매개)	수용 → 정서적단절	.79	.66	12.41***	.44	154.04***
2단계 (독립→종속)	수용 → 교사민감성	.34	.26	3.77***	.06	14.22***
3단계 (독립, 매개→종속)	수용 → 교사민감성	.21	.16	1.75	.07	8.50***
	정서적단절 → 교사민감성	.16	.15	3.05		

*** $p < .001$.

정서적 단절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수용적 아동기경험이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였으나($\beta = .26$, $p < .000$; $\beta = .16$, $p < .08$), 정서적 단절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수용적 아동기경험은 교사민감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서적 단절을 통한 간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독립성조장 아동기경험이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적 분리의 매개효과

보육교사의 독립성조장 아동기경험이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나타난 정서적 분리의 매개효과는 그림 3, 표 7과 같다. 회귀분

석 결과 독립성 조장 아동기경험이 정서적 분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F = 24.17$, $p < .000$), 교사민감성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11.55$, $p < .001$). 또한 독립성조장 아동기경험과 정서적 분리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교사민감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11.49$, $p < .000$). 이때 독립성조장 아동기경험이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여($\beta = .24$, $p < .001$; $\beta = .16$, $p < .03$) 정서적 분리의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매개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본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Z = 2.24$, $p < .05$). 이는 독립성조장 아동기경험은 교사민감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독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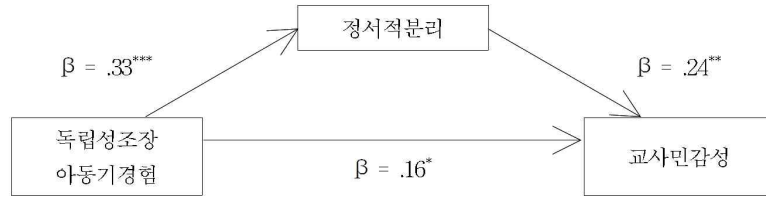


그림 3. 독립성조장 아동기경험이 교사 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적 분리의 매개효과

* $p < .05$. ** $p < .01$. *** $p < .001$.

표 7. 독립성조장이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적 분리의 매개효과 ($N = 198$)

단계	변인	B	β	t	R^2	F
1단계 (독립→매개)	독립성조장 → 정서적분리	.41	.33	4.92***	.11	24.17***
2단계 (독립→종속)	독립성조장 → 교사민감성	.43	.24	3.40**	.06	11.55**
3단계 (독립, 매개→종속)	독립성조장 → 교사민감성	.29	.16	2.19*	.11	11.49***
	정서적분리 → 교사민감성	.35	.24	3.30**		

* $p < .05$. ** $p < .01$. *** $p < .001$.

성조장 아동기경험이 정서적 분리를 통해 교사민감성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용적 아동기경험이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적 분리의 매개효과

보육교사의 수용적 아동기경험이 교사민감

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나타난 정서적 분리의 매개효과는 그림 4, 표 8과 같다. 회귀분석 결과 수용이 정서적 분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 = 134.25$, $p < .000$), 교사민감성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14.22$, $p < .000$). 또한 수용적 아동기경험과 정서적 분리를 동시에 투입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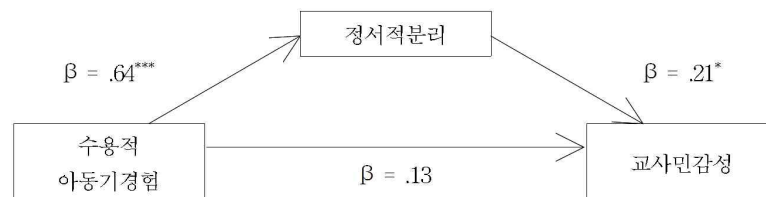


그림 4. 수용적 아동기경험이 교사 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적 분리의 매개효과

* $p < .05$. *** $p < .001$.

표 8. 수용적 아동기경험이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적 분리의 매개효과 (N = 198)

단계	변인	B	β	t	R ²	F
1단계 (독립→매개)	수용 → 정서적분리	.56	.64	11.59***	.41	134.25***
2단계 (독립→종속)	수용 → 교사민감성	.34	.26	3.77***	.07	14.22***
3단계 (독립, 매개→종속)	수용 → 교사민감성	.17	.13	1.45	.09	10.01***
	정서적분리 → 교사민감성	.31	.21	2.34*		

* $p < .05$. *** $p < .001$.

을 때 교사민감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10.01$, $p < .000$). 이때 수용적 아동기경험은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없어지고($\beta = .26$, $p < .000$; $\beta = .13$, $p < .150$), 정서적 분리의 매개효과만 나타났다. 이러한 매개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본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 = 2.29$, $p < .05$). 즉 수용적 아동기경험은 교사민감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정서적 분리를 통해 교사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성조장 아동기경험이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삼각화의 매개효과

보육교사의 독립성조장 아동기경험이 교사

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나타난 삼각화의 매개효과는 그림 5, 표 9와 같다. 회귀분석 결과 독립성조장 아동기경험이 삼각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F = 26.48$, $p < .000$), 교사민감성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11.55$, $p < .001$). 또한 독립성조장 아동기경험과 삼각화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교사민감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9.32$, $p < .000$). 이때 독립성조장 아동기경험이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여($\beta = .24$, $p < .01$; $\beta = .17$, $p < .02$) 삼각화의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매개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본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 = 2.32$, $p < .05$). 즉 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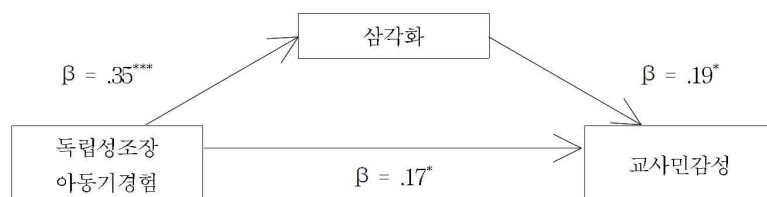


그림 5. 독립성조장 아동기경험이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삼각화의 매개효과

* $p < .05$. ** $p < .01$. *** $p < .001$.

표 9. 독립성조장 아동기경험이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삼각화의 매개효과 ($N = 198$)

단계	변인	B	β	t	R^2	F
1단계 (독립→매개)	독립성조장 → 삼각화	.45	.35	5.15***	.12	26.48***
2단계 (독립→종속)	독립성조장 → 교사민감성	.43	.24	3.40**	.05	11.55**
3단계 (독립, 매개→종속)	독립성조장 → 교사민감성	.31	.17	2.34*	.08	9.32***
	삼각화 → 교사민감성	.27	.19	2.60*		

* $p < .05$. ** $p < .01$. *** $p < .001$.

립성조장 아동기경험은 교사민감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독립성조장 아동기경험이 삼각화를 통해 교사민감성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영향에서 삼각화의 매개효과

보육교사의 수용적 아동기경험이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나타난 삼각화의 매개효과는 그림 6, 표 10과 같다. 회귀분석 결과 수용적 아동기경험이 삼각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F = 134.25$, $p < .000$), 교사민감성에도

수용적 아동기경험이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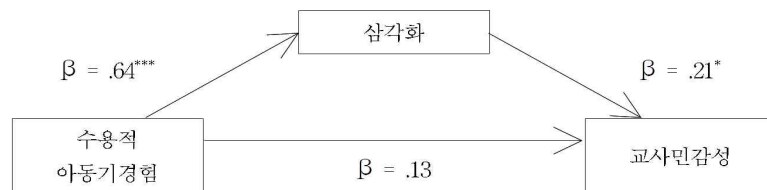


그림 6. 수용적 아동기경험이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삼각화의 매개효과

* $p < .05$. *** $p < .001$.

표 10. 수용적 아동기경험이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삼각화의 매개효과 ($N = 198$)

단계	변인	B	β	t	R^2	F
1단계 (독립→매개)	수용 → 삼각화	.56	.64	11.59***	.41	134.25***
2단계 (독립→종속)	수용 → 교사민감성	.34	.26	3.77***	.07	14.22***
3단계 (독립, 매개→종속)	수용 → 교사민감성	.17	.13	1.45	.09	10.01***
	삼각화 → 교사민감성	.31	.21	2.34*		

* $p < .05$. *** $p < .001$.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14.22, p < .000$). 또한 수용적 아동기경험과 삼각화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교사민감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10.01, p < .000$). 이때 수용적 아동기경험이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없어지고($\beta = .26, p < .01$; $\beta = .13, p < .01$) 삼각화의 매개효과만 나타났다. 이러한 매개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본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 = 2.24, p < .05$). 즉 수용적 아동기경험은 교사민감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삼각화를 통해 교사민감성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아동기경험이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 자기분화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여 보육교사의 원가족과의 경험이 현재 보육교사의 보육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보육 현장에서의 교사민감성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되었다.

보육교사의 아동기경험이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자기분화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본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각 변인에 대한 관련된 기존연구를 토대로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보육교사의 아동기경험과 자기분화 그리고 교사민감성에 대한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각 변인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아동기경험과 자기분화가 좋으면 교사

민감성도 높은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보육교사가 어린 시절에 독립심을 고무 받고 수용을 받은 경험이 많으며 자기분화가 잘 이루어진 경우 교사민감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은 어머니의 역할 수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이미영, 이현옥, 2015)와 자기분화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높은 양육효능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문영희, 2013)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영아교사의 민감성과 영아발달이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 연구결과(김기철, 이선채, 2016)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보육교사의 아동기 경험이 긍정적이고 자기분화 수준이 높을 때 교사 민감성도 높고, 이는 보육교사가 영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둘째, 아동기경험이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아동기 경험 중 독립성 조장 아동기경험과 수용적 아동기경험이 모두 교사민감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빈윤희, 2015)에서 유아교사의 원가족 경험과 회복탄력성이 교수효능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있었지만 회복탄력성만 교수효능감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던 것과는 일치하지 않지만 선행연구에서의 변수 간 관련성이 영향력으로 입증된 결과이다. 또한 어머니 대상의 연구와 관련지어 볼 때, 자신의 영아기에 어머니와의 긍정적인 애착이 형성되었을 경우 어머니가 되고 경제적 수준이 안정적일 때 영아기 자녀에게 긍정적인 애착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정경화, 김숙령, 2014)

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어머니의 아동기 부모와의 애착경험이 안정적인 때 양육행동이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김동진, 2016)와 맥을 같이 함(김숙령, 2010; Ainsworth, 1982)을 고려할 때, 교사의 아동기경험이 영유아와를 보육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영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원가족에서의 경험이 이후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연구결과들을 보면, 자신의 부모와 부족한 상호작용을 경험할수록 자녀에게 민감하지 못하며 자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이지선, 2001), 반대로 부모로부터 독립심을 더 많이 고무 받고 부모에게 수용된 경험이 많은 경우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권영임, 2011; 장영심, 조영숙, 2014)가 제시된 바 있다. 또한 부모로부터 수용을 경험한 어머니는 부정적 행동이 일어난 원인을 자녀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거나, 어머니로부터의 거부경험은 자녀 스스로 조절할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는 성향에 영향을 미치며, 아버지로 부터의 과잉보호경험과 거부경험, 그리고 부모의 심리적인 통제가 높을수록 자녀는 정서적 단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김유리, 김희정, 2013)와 어머니로부터의 거부경험은 부정적 행동을 자녀 스스로 조절할 능력이 없다고 귀인하는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연구결과(이지선, 2001)를 통해 보육교사의 아동기 경험이 부정적인 경우, 영아가 교사에게 도움을 얻기 위해 언어적·비언어적으로 하는 표현을 기질 탓으로 돌리거나 영아가 당면한 문제점을 극복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상호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보육교사의 부모와의 안정적인 아동기경험이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입증한 본 연구의 결과는 긍정적인 아동기경험을 한 보육교사가 영아에게 민감한 반응을 함으로써 영아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성연숙(2011)의 지시적 모래상자 프로그램을 통한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경험한 아동기의 재구조화는 자녀의 정서에 대해 수용적인 반응태도로 변화되었다. 진미경(2010)의 애착이론에 근거한 집단 프로그램을 통한 연구에서는 아동기의 경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보육교사로서 자신의 아동기경험을 돌아보고 이에 대한 충분한 성찰 및 부정적 경험에 대한 심리적 재구성 과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보육교사의 아동기경험이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자기분화의 매개역할을 살펴본 결과, 수용적 아동기 경험에 대한 정서적 단절의 매개 역할을 제외하고는 독립성 조장 및 수용적 아동기경험이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자기분화 중 정서적 단절 및 정서적 분리 그리고 삼각화가 부분 혹은 완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기 경험 중 독립성조장 아동기경험이 교사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분화 중 정서적 단절과 정서적 분리 그리고 삼각화는 모두 영향력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적 아동기경험이 교사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분화 중 정서적 단절의 매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자기분화 중 정서적 분리와 삼각화는 영향력을 완전 매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자기분화의 매개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 것은 교사의 아동기경험이 교사민감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교사의 아동기경험과 자기분화가 복합적으로 교사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밝혀내기 위해서이다. 즉 교사의 아동기경험과 교사의 자기분화가 교사민감성에 각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교사의 자기분화는 교사의 아동기경험이 원인이 되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사의 아동기경험이 교사 자신의 자기분화를 통해 교사민감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던 선행 연구에서 자기분화의 영향력을 검증하여 자기분화가 낮은 어머니들에게 현재의 양육은 원가족에서 경험했던 자신의 어머니의 양육방법의 틀에 따라가게 되는 연구결과(조상희, 박찬옥, 2012)와 자기분화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도 높은 연구결과(예남희, 민하영, 2013; 하지민 등, 2015)와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 매개효과에 대한 결과는 교사의 아동기경험이 교사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분화의 정서적 단절, 정서적 분리, 삼각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위요인별로 독립성 조장의 아동기경험은 교사민감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기분화 중 정서적 단절과 정서적 분리 그리고 삼각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경험 중 수용적 아동기경험의 경우 교사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분화 중 정서적 단절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동기경험 중 수용적 아동기

경험의 경우 직접적으로 교사민감성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자기분화 중 정서적 분리와 삼각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문영희(2013)의 어머니의 자아분화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정서적 단절이 낮을수록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와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 있다는 부모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연구결과와 박명선(2010)의 유아기 어머니의 현재 정신내적인 분화수준이 높을수록 정서분리와 사고를 잘하는 자아분화가 높음을 의미하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이것은 아동기경험과 함께 자기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보육대상인 영아와의 관계에서의 효능감이 높고, 영아들과 보다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자세로 관계를 유지하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조상희와 박찬옥(2012)은 자아분화가 낮은 경우 양육 상황에서 감정을 제어하기 어려움을 느끼며 알면서도 조절하기 힘든 감정의 치우침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자기분화는 인성적인 특성으로도 문제를 드러내게 되며, 이러한 인성적인 문제는 교사가 영아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에 방해요소가 된다. 또한 자기분화의 영향으로 심리적인 갈등과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교사는 유아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지도하기에 미흡하다(김경희, 김선희, 2016). 정성경과 김정희(2004)의 연구에서 집단상담을 통해 자기분화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상승하여 불안 수준이 감소한 연구를 비추어 볼 때, 교사의 아동기경험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한 것이고 자기분화는 정서에 의한 것으

로 개념적으로 구분이 되지만, 개선방법으로는 동일하게 집단상담을 통하여 교사의 아동기경험의 재구성과 함께 자기분화 수준이 상승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의 자기분화 수준을 점검하여 교사 개인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기분화가 낮은 데서 발생 가능한 이전 경험의 감정적 개입이 영아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집단상담 및 교육 등 개입 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아동기경험이 교사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자기분화의 매개역할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아동기경험 중 독립성조장 아동기경험, 수용적 아동기경험이 자기분화를 매개로 하여 교사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아동기 시절에 독립심을 고무 받고 수용의 경험이 많을수록 자기분화의 수준도 높아져서 두 요인이 함께 교사민감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수용경험과 자기분화의 정서적 분리와 삼각화의 영향력이 완전 매개하여 두드러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교사의 아동기에 수용을 잘 해주지 않는 부모에 의해 교사의 어린 시절 부모와 정서적으로 분리가 되는 경험을 덜 하게 되고 삼각화를 경험하게 되어 이후 교사의 민감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아동기경험의 재구조화가 어머니의 정서반응태도를 변화시키고 어머니의 아동기경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결과(성연숙, 2011)를 교사와 영아의 관계에 적용하여 생각해 볼 때, 보육교사의 아동기경험의 재구조화

가 보육교사 자신의 아동기경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영아에 대한 반응적인 태도가 변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예비보육교사 양성과정의 내용 및 보육교사의 현직 보수교육과정에서 보육교사의 아동기경험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건강한 자기분화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교사민감성을 높임으로서 궁극적으로 영아의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자기보고식 설문지에 의해 수행되었다. 통계분석을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대상을 모집하고 수행해야 하는 연구의 성격상 대부분의 연구에서 수행되는 연구방법이긴 하나, 교사민감성에 대한 부분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영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사민감성을 측정하는 연구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밝혀진 변인간의 경향성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 소수를 대상으로 하여 질적 연구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주목한 교사의 아동기경험 및 자기분화의 변인의 교사민감성에 대한 설명력이 다소 낮은 경향이 있다. 이는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교사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어 교사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에 대한 보다 정교한 모형이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교사 민감성에 대한

보육교사의 아동기 경험의 영향력과 자기분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부모와 영아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교사와의 관계에서 이를 검증한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현대사회의 영아보육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아와 교사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본연구와 같이 부모자녀관계 뿐만 아니라 교사와 영아의 관계에 적용하여 그 관계를 입증해 낼 수 있는 변인들을 고찰하고 이를 입증하여 영아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하는 연구들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본연구의 결과는 교사 양성과정의 교육 내용 및 현직 보수교육과정의 내용을 구성할 때 보육교사의 아동기경험을 재구성할 수 있고 자기분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내용을 반영한 보육교사의 아동기경험 및 자기분화 수준에 대한 성찰은 교사와 영아의 관계 증진을 통해 영아의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광숙 (2011). 원가족 부모의 양육태도가 어머니의 자아개념과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공병호, 백승학 (2014).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의 양육경험이 부모역할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8(2), 1-21.
- 권기자 (2010). 아동의 심리적 가정환경이 자아개념에 형성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영임 (2011).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이 자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아동교육, 20(2), 85-96.
- 김경희, 김선희 (2016). 보육교사의 자기분화,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4), 289-300.
- 김기철, 이선채 (2016). 영아교사의 성인애착과 교사효능감 및 민감성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6(4), 201-226.
- 김나영 (2001). 부모의 아동기 경험과 자녀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진 (2016). 어머니의 원가족부모와의 애착경험과 양육태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영 (2011). 영아전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교사민감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숙령 (2010). 영아-교사간 상호작용의 질적 수준과 교사의 민감성이 영아의 부모와 교사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61, 197-215.
- 김아령 (2015).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과 심리적 소진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숙, 신나리 (2013). 영아의 어머니 및 교사에 대한 애착 안정성이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5), 229-249.
- 김유리, 김희정 (2013).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 자녀의 정서적 단절의 관계. 상담

- 학연구, 14(5), 3041-3064.
- 김재란 (2017). 영아교사의 민감성이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주, 김용미 (2011).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사회, 심리적 특성과 아동기 경험이 아버지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0(1), 113-129.
- 김철근, 이완정 (2012). 아동기의 경험과 부모로서의 양육효능감이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70, 107-126.
- 노수진, 이경님 (2015). 영아교사의 보육효능감과 자아탄력성 및 직무스트레스가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 생태유아교육연구, 14(3), 92-113.
- 문영희 (2013). 어머니의 원가족 건강성과 자아분화가 자녀 양육효능감과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명선 (2010). 어머니 자아분화와 유아의 정서지능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한별 (2014). 지각된 원가족 부모의 양육태도가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2016).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 빈윤희 (2015). 유아교사의 원가족 경험과 회복탄력성이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연숙 (2011). 어머니의 아동기경험 재구조화가 자녀의 정서에 대한 반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애란, 송승민, 이사라 (2015). 영아의 기질, 교사의 민감성 및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생애학회지, 5(1), 37-53.
- 예남희, 민하영 (2013). 어린이집 교사의 정서적 몰입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간발달학회, 22(2), 134-134.
- 원수연, 최미경 (2014).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아동기 애착경험 및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 한국아동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4(11), 124-125.
- 윤은영 (201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영아의 기질에 따른 언어발달 연구. 사회복지지원학회지, 8(1), 33-51.
- 윤은희 (2014).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이 아동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선, 김한나 (2015). 보육교사의 아동기 시절 가정폭력 경험과 학대피해경험이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12), 309-333.
- 이미영, 이현옥 (2015).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기애착경험과 성격 및 양육신념이 어머니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육아지원연구, 10(1), 169-188.
- 이민영 (2015). 보육교사의 정서지능이 교사 민감성과 교사-영아 관계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부영 (2011). 분석심리학 C. G. Jung의 인간심성론. 서울: 일조각.
- 이유진, 김정미 (2013). 예비유아교사의 자기효

- 능감과 부모애착, 자아분화, 학과만족도 간 관계. 유아교육연구, 33(2), 145-162.
- 이윤희 (2012). 방임적 부모양육태도와 내현적자기애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숙 (2003). 교사경력과 유아연령에 따른 교사-유아의 상호작용.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선 (2001). 부모의 아동기 경험이 자녀의 부정적 행동에 대한 귀인 성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태영, 김명하 (2013). 예비유아교사의 자기분화 수준에 따른 자아상태, 교수신념, 교사 효능감의 차이 분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4(4), 571-587.
- 이형민, 박성연, 서소정 (2008). 어머니의 양육 유형 및 민감성이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6(2), 97-111.
- 장영심, 조영숙 (2014). 어머니의 아동기경험 및 부모역할만족도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9(4), 145-163.
- 장현주 (2004). 보육 시설의 교수-학습 환경이 유아의 정서지능 발달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연진 (2002). 삼세대 가족관계 경험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춘애 (1994). 부부의 자아분화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 지각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현진 (1997). 부모의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경화, 김숙령 (2014). 어머니 대모애착, 양육 효능감, 경제적 수준과 영유아기 애착 발달과의 관계.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1), 165-181.
- 정미라, 권정윤, 박수경 (2011). 애착안정성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민감성이 12개월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5(6), 335-352.
- 정미숙, 이미나 (2015). 예비유아교사의 성인애착과 자기분화 간의 관계. 홀리스틱교육연구, 19(3), 207-223.
- 정성경, 김정희 (2004). Bowen 이론을 활용한 가족관계 증진 집단상담이 자기분화와 불안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5(3), 823-838.
- 조상희, 박찬옥 (2012). Bowen의 자기분화 개념에 근거한 어머니의 양육 경험 탐구. 유아교육학논집, 16(2), 139-166.
- 진미경 (2010). 성인의 애착 관계 재구조화를 위한 집단 프로그램 연구.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3(3), 107-120.
- 하지민, 서현아, 한희정, 오소라 (2015). 유아교사의 자기분화 및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6(2), 487-513.
- 허혜경, 박인숙 (2010). 보육교사의 자질과 직무태도가 보육의 질(質)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64, 21-41.
- 황소영 (2014). 예비유아교사의 자기분화와 원가족 건강성, 자아탄력성 및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18(5), 503-

- 525.
- Ainsworth, M. D. S. (1982). Attachment: Retrospect and prospect. In C. Parke, J. Stevenson-Hinde, & P. Marris (Eds.), *Attachment across the life cycle* (pp. 33-51). London: Routledge.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artle-Haring, S., & Sabatelli, R. (1998). An intergenerational examination of patterns of individual and family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903-911.
- Bowen, M. (1985).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 Bray, J. H., Willimason, D. S., & Malone, P. E. (1984). *Personal Authority in the Family System Questionnaire Manual*. Houston, TX: Houston Family Institute.
- Chun, Y. J. (1994). *Intergenerational dynamics in three-generation families: Adult's emotional ties and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Doctoral Dissertation). Purdue University, West Lafayette.
- Epstein, S. (1983). *The mother-father-peer scal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 Gerber, E. B. (2003). *Predictors of teacher sensitive caregiving in center-based child car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Gilbert, R. (1992). Extraordinary relationships: A new way of thinking about human interactions. *Minneapolis*. MN: Chronimed Publication.
- Kerr, M., & Bowen, M. (1988). *Family evaluation*. New York: Norton.
- Lim, M-G., & Jennings, G. H. (1996). Marital satisfaction of healthy differentiated and undifferentiated couples. *Family Journal*, 4(4), 308-315.
- Meins, E. (1999). Sensitivity, security, and internal working models: Bridging the transmission gap.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1, 325-342.
- Stayton, D. J., Ainsworth, M. D., & Main, M. B. (1973). Development of separation behavior in the first year of life: Protest, following, and gree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9(2), 213-225.
- Van Ijzendoorn, M. H., Schuengel, C., & Bakermans-Kranenburg, M. (1999). Disorganized attachment in early childhood: Meta-analysis of precursors, concomitants and sequela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1(2), 225-250.
- Vondra, J., & Belsky, J. (1993). Developmental origins of parenting: Personality and relationship factors. In T. Luster & L. Okagaki (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pp. 1-33).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1 차원고접수 : 2017. 10. 10.
수정 원고접수 : 2017. 11. 17.
최종 게재결정 : 2017. 11. 21.

The Effects of Childhood Experience on Teacher Sensitivity: A Mediational Effect of Self-Differentiation

Park, Hyun Soon

Suh, Joo Hyun

Dep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hildhood experience and self-differentiation on the teacher's sensitivity by verifying whether self-differentiation has a mediating effect on the teacher's sensitivity. 198 child care teachers in Seoul and Gyeonggi-do self-reported measures regarding their childhood experience of family of origin, self-differentiation and teacher's sensitivity. Data were analyzed using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Baron & Kenny(1986)'s mediating effect validation procedure and Sobel test was performed for statistical verific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each variable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Second, the childhood experiences of child care teachers have an influence on teacher's sensitivity. Third, emotional discontinuation, emotional separation, and triangulation moderated the effect of independence facilitation during childhood on teacher sensitivity. The effect of acceptance on teacher sensitivity was moderated by emotional separation and triangul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organizing contents of curriculum for child care teachers or preliminary child care teachers to improve teacher-child relationships.

Keywords: independence facilitation, acceptance, teacher sensitivity, emotional discontinuation, emotional separation, triangulation